

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고용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3.5.(목), 동아일보 “노인 일자리 예산 2조 넘는데...중장년 재취업 지원 500억 그쳐”

2. 설명 내용

- 중장년 재취업 지원 예산은 500억 원에 한정되지 않음
 - 보도에서 언급된 543억은 일부 ‘정년 전 재취업 특화사업’ 예산만을 집계한 수치로 중장년이 주로 참여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, 국민취업지원제도, 고용장려금 등을 고려해야 함
 - 따라서 ‘정년 전 재취업 특화사업’ 예산만으로 전체 정책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중장년 재취업 지원정책 전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
- 정부는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부터 생애경력설계, 훈련·일경험, 취업알선·장려금 등 재취업 지원까지 ‘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’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
 - 특히, 25년에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(2,000명)를 도입하는 한편
 - 26년에는 훈련·일경험 수료생들이 제조업·운수 및 창고업 등 구인난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중장년에게 지원하는 ‘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’(1,000명)를 새로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옴

- 아울러, 중장년 재취업을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 내일센터, 지역 유관 기관이 연계된 ‘중장년 고용네트워크’를 확대(15개 → 40개 내외)하여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지속 강화할 예정

□ 앞으로도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대상의 전직·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고용정책을 계속 확대하겠음
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엄대섭	(044-202-7454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	(044-202-7461)

